

kt, 징계수위 강화 한다더니...또 ‘숨방망이’ 논란

음주운전 오정복 ‘10경기 출장정지·벌금 300만원’ 자체 징계

인명사고 없음 감안? 원아웃 제도 유명무실
징계수위 강해지는 추세...KBO 상벌위 주목

kt 외야수 오정복(30)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포수 장성우(26)와 투수 장시환(29)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터진 사건이다. 1군에 진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생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구단의 선수단 관리의 물론 낮은 징계수위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오전 오정복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복은 전날 오후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갖고 수원 권선구 자택으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3%로 나타났다.

오정복은 SK와의 시범경기가 열린 13일 홈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에 나와 구단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선수의 소명을 들었고, 경기 시작 후 1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시55분경 1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kt, 일탈행위 방지 대책은 무용지물?

kt는 지난해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징계와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리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내부규정 내에 일탈행위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약물, 도박, SNS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퇴출 등 징계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정복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는 ‘숨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아웃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구단 내규에 음주운전 시 벌금 외에 출장정지 수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구단 내에 전례가 없긴 하지만, 최근 들어 각 구단이나 KBO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다.

또 KBO가 오정복에 대해 10경기가 넘는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다면, kt의 내부징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동안 관례상 KBO의 출장정지 경기수가 더 많다면, 해당 수치를 적용해왔다. KBO는 조만간 오정복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KBO는 지난해 시즌 도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투수 정찬현(26)과 내야수 정성훈(36)에게 ‘잔여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리는 등 최근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오정복의 해명고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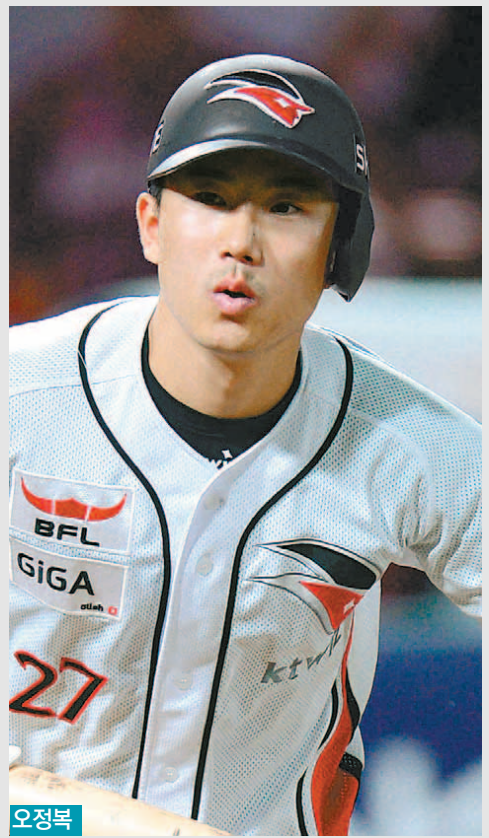
징계가 확정된 뒤 오정복은 곧바로 kt위즈파크 기자회견을 찾아 취재진에게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동네 아는 동생 이랑 술을 먹었다. 동생도 술이 약하고 나도 집에 가야 했는데 집이 바로 앞이었다. 1km가 안 되는 거리였다”고 밝혔다.

오정복은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초 오정복과 동행한 여성의 남자를 의심해 신고가 됐고, 경찰이 오정복의 자택 앞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오정복은 “동생을 혼자 놔두기 그래서 근처에 사니 내 차로 데려다주려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오해했다. 경찰에게 동네 오빠라고 말한 뒤, 술을 마셨나고 해서 그렇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정복은 기자회견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프로선수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되고, 행동을 더 조심해야 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1군에서 야구를 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게 성실한 태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원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오정복



광정철

“광정철 간절함 믿는다”

12일 넥센전 1.1이닝 3K...김기태 감독 미소

“(광)정철이의 간절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KIA 우완투수 광정철(31)의 마지막 정규시즌은 5년 전인 2011년이었다. 2005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그는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였다. 2009시즌에는 핵심 불펜요원으로 활약하며 41경기에서 5승4패 7홀드2세이브, 방어율 4.05를 기록했다. 그해 SK와의 한국시리즈 4경기에서도 1홀드, 방어율 1.59의 쾌투로 KIA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꽃을 활짝 피울 일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2011시즌 6월 우측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시즌을 접었고, 그해 9월 부상 부위 뼈조각 제거 수술, 12월 팔꿈치 연골 수술을 받고 긴 재활에 매달렸다. 이 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병역을 해결했다. 2014시즌 복귀를 꿈꿨으나, 지나친 의욕이 독이 됐다. 이번에는 무릎이 문제였다. 그해 2월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제거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7월에는 오른쪽 무릎 연골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연골 성형수술까지 받았다. 또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좌절은 없었다.

먼 길을 돌아왔다. 지난해 2군에서 29경기(2승4패5홀드·방어율 6.49)에 등판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올해 시범경기에서 꿈에 그리던 마운드에 섰다. 9일 광주 LG전에서 1.1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건재를 알렸고, 12일 광주 넥센전에선 1.1이닝 1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세이브를 따냈다. 광정철의 부활투에 KIA 김기태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1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정철이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절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정말 지루한 시간이다”며 “(광정철의 복귀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정철이가 참 대단하다”고 강조한 김 감독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다.

광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넥센, 시범경기 첫 승리 넥센 영점업 감독(오른쪽 줄 맨 앞)이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KIA전을 12-3 대승으로 장식한 뒤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건강한 최정·김강민” SK 김용희 감독의 바람

FA 2년차...올해 타율 3할 이상 기대
최정, kt전 ‘만루홈런’ 컨디션 최고조

SK 김용희 감독은 결국 ‘빠대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을 맡고 히터낸 최정(29)과 김강민(34)이 김 감독의 바람대로 ‘건강한’ 선수로 SK의 재건을 이끌 수 있을까.

지난해 SK는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FA(프리 에이전트)로 주축 멤버인 최정과 김강민을 각각 86억원과 56억원에 4년간 잔류시켰지만, 과감한 투자가 무색하게도 뒤따른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둘 다 부상으로 고전했

다. 시즌을 앞두고 무릎을 다쳤던 김강민은 9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6에 그쳤고, 최정은 시즌 내내 어깨와 발목이 말뼌을 부린 탓에 81경기에서 타율 0.295를 기록했다. 높은 몸값으로 선수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긴 셈이다. SK로서도 타선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할 두 선수가 많은 경기를 소화해주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올해로 둘은 FA 2년차다.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던 만큼 이번 시즌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 감독 역시 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올 시즌의 키플레이어로 최정과 김강민을 꼽았을 정도다. 김 감독

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두 선수를 두고 “몸 상태가 훨씬 좋다. 작년보다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웃으며 “144경기의 장기레이스에선 결국 팀의 빠대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잘해줘야 한다. 새로운 선수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최정과 김강민이 잘해야 팀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최정과 김강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는 부상 없이 3할 이상 쳐줘야 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감독의 기대에 화답하듯 최정은 이날 3번 3루수로 선발출전해 0-1로 뒤진 6회초 2사 만루서 kt 2번째 투수 김사율을 상대로



최정



김강민

중월만루홈런을 날렸다. 최정의 만루홈런으로 승기를 잡은 SK는 7-1로 이겼다. 2번 중견수로 선발출장한 김강민은 2타수 무안타 1삼진 1볼넷을 기록했다.

수원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서대원 인턴기자 seody3062@donga.com

마무리 투수 로테이션? 김성근 감독의 ‘행복한 상상’

정우람·권혁·박정진·윤규진 두고 마무리 고민

“마무리를 로테이션으로 맡겨?”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FA(프리 에이전트) 정우람을 역대 불펜투수 중 최고액인 4년 84억원에 영입했다. 정우람이 가세하면서 불펜진이 질적·양적으로나 한층 강화된 느낌이다. 실제로 12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벌어진 시범경기 삼성전에서 정우람은 대전 팬들에게 화끈한 첫 인사를 했다. 5-3으

로 앞선 8회초 2사 1루서 마운드에 올라 1.1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준 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세이브를 올렸다. 유력한 마무리투수인 그가 공 14개로 편안하게 승리를 결정짓자 한화 팬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하루가 지난 13일 김성근 감독은 전날 정우람의 투구에 대해 “(스프링)캠프 때 몸도 늦게 만들어지고 감기도 걸려 스케줄이 늦어졌는

데, 귀국하기 전 200개를 두 차례 던지면서 팬참아졌다. 이제부터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나 싶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정우람이 마무리로 확정되는 것일까.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정우람도 있지만 좀더 봐야지. 권혁, 박정진도 있고, 윤규진도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불펜 부자가 된 것 같다’는 질문에 김 감독은 “아예 마무리를 로

테이션으로 맡길까”라며 웃더니 “어떤 자리에 가든지 다들 자기 역할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믿음을 보였다. 선발 로테이션이 아닌 마무리 로테이션이라... 농담처럼 말했지만, 김 감독의 스타일상 실제 시즌에 돌입하면 상대팀이나 상대 타자 등에 따라 마무리를 번갈아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